

2021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 (상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상편 ◀

1.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 (1) 자화상 (47문제)-----1쪽
(2) 책 속에 길이 있다 (37문제)-----19쪽

2. 마음을 잇는 소통의 창

- (1) 매체를 읽는 눈 (31문제)-----36쪽
(2) 책임감 있게 글쓰기 (23문제)-----52쪽
(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42문제)-----63쪽

3. 문학으로 그리는 삶

- (1) 첫사랑 (42문제)-----79쪽
(2)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49문제)-----94쪽
(3) 결혼 (54문제)-----125쪽
(4) 반 통의 물 (37문제)-----158쪽

4. 바른 말, 바른 글

- (1) 음운의 변동 (70문제)-----175쪽
(2) 한글 맞춤법 (65문제)-----198쪽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32문제)-----220쪽

◆빠른 전체 정답-----238쪽

◆해설-----241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상편 ◀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상편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은 난이도가 낮은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상편 ◀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딱 뿌러지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 이걸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망망의 숲 한켠에 있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머리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득은 () 공감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득은 () 공감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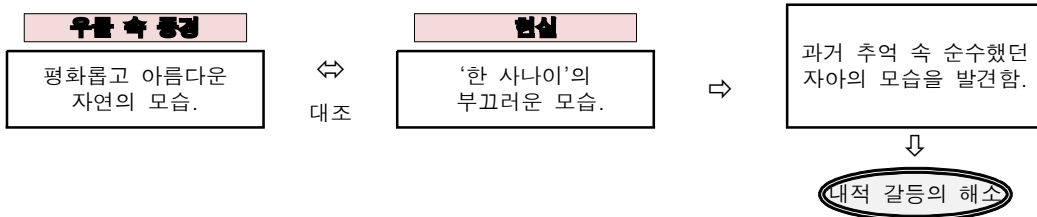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자화상” 명리 문력

●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고백적
어조	자신을 성찰하는 차분한 어조.
제재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주제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연민과 미움, 화해하는 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서문을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진술함. •구체적 행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형상화함.

● 우물 속 풍경과 현실의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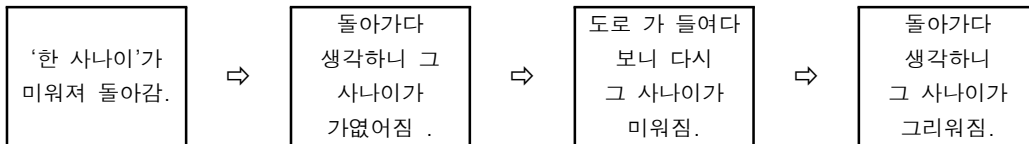
● 우물의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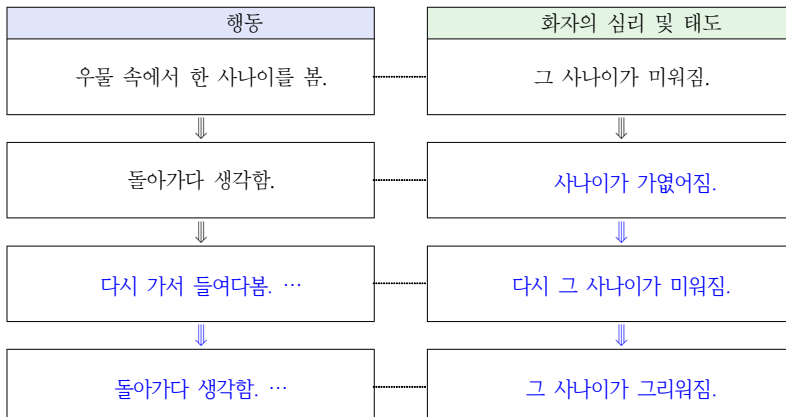
-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 현실 속의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화자가 자아 성찰에 이르게 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함.

● 화자의 심리 및 태도 변화



“자화상” 문리선 문력

1) 이 시 속 화자의 행동과 그에 따른 심리 및 태도를 파악해 보자.



2) 다음은 이 시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대화의 빈 곳을 채워 보자.

- *여학생: 화자는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거울을 보듯이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이걸 자기 성찰을 하려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나도 혼자 있을 때에 거울로 내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데, 화자도 그렇지 않았을까?
- *남학생: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잖아. 이 시에서도 역시 자기반성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 *여학생: 나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이라는 시구가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이 시구는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이야. 그리고 2연과 6연에서 반복되면서 시 전체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어.
- *남학생: 나는 이 시의 창작 시기가 일제 강점기라는 것을 고려하여 시를 해석해 봤어. 일제 강점기라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시인은 고통스러웠을 거야. 우물에 있는 사나이가 미워 보였던 까닭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 아닐까?

3) 다음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 눈에 보이는 외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순수함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서술자인 ‘나’는 어린 왕자를 안고 가면서 보물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린 왕자의 외면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순수함 때문이다.
- 소중한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담긴 정서나 감정이라는 의미이다. ‘나’가 자신이 어렸을 적에 살던 오래된 집을 신비한 마법에 걸린 것처럼 느낀 이유는, 그 집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파아란” 두원 시인

1)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 화자는 논가의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즉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자신을 보고 있는데, 이는 우물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며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시에서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우물 속의 아름답고 고요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자아를 성찰하려 하는 화자의 쓸쓸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표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파아란 바람’이라는 시어는 촉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공간각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아란’은 문법에 맞지 않으므로 시적 허용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3)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우물에 비친 사나이, 즉 자신에 대해 미움을 느끼고 돌아가던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니 가엾다고 느낀다. 화자는 자아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우물에 가서 다시 들여다보지만 미운 모습이 그대로 있다.

4)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 ‘사나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화자는 자신에 대한 미움과 연민, 그리움을 교차적으로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때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은 사나이 자체가 아니라 화자가 이전에 품었던 순수한 마음, 즉 화자의 내면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움을 느낀다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가 부정적이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내적 갈등을 거듭하던 화자가 마침내 자기 자신과 화해하려 함을 알 수 있다.

5)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화자는 우물 속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 안에서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앞에서 ‘사나이’를 미워했다가 연민을 느끼고, 다시 미워하며 자신에 대한 애증을 반복하던 화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과거의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물 속의 풍경 묘사는 2연의 내용을 반복하며 작품 전체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다.

“자화상” 읽고 자료

1)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절대론적 관점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창작 의도와 창작 동기, 작가의 삶 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반영론적 관점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당시의 시대 현실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효용론적 관점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독자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2) 시적 허용

시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섬세하게 표출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시 창작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휘보다 더 섬세한 예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용인된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정으로서 문법, 어법, 리듬, 운(韻), 역사적 사실 등에서 이탈의 구실로 인용된다. 이를 시적 허용 또는 시적 자유, 시적 파격(詩的破格)이라고 한다. ‘먼산’을 ‘머언 산’으로, ‘우리 어머니’를 ‘울엄매’로 표현한 것은 언어의 음악성이나 어감의 차이에 의해 섬세한 정서를 드러내는 시적 허용의 예이다.

3) 자아 성찰의 매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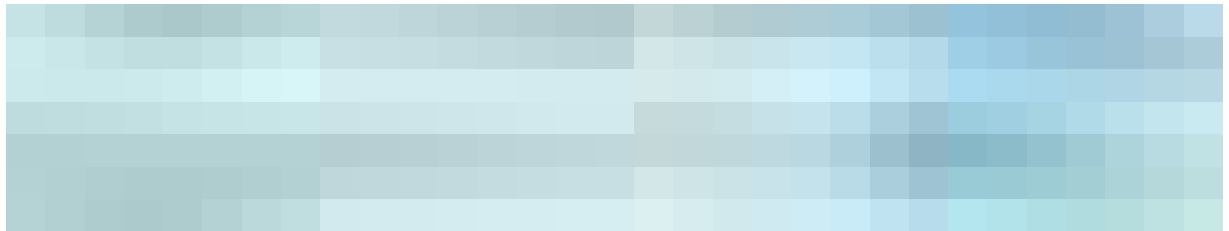
「자화상」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있으므로,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볼 수 있는 거울 따위의 반사체들은 많은 시 작품에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등장하고는 한다. 「자화상」의 화자는 우물을 거울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윤희동의 다른 시 「참회록」에서도 화자는 ‘구리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한다. 이상의 시 「거울」에서도 ‘거울 밖의 나’가 거울에 비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면서 자아를 관찰한다.

4)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는 자화상 화자의 심리 변화

이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이다. 반영론적 관점에서 화자의 태도와 감정을 살펴보면, 화자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며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담했던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화자는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를 혐오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다 그런 나약한 자신의 모습에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다시 미워했다가, 마지막엔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애증을 반복하던 화자는 마지막에서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과거의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자화상” 작품 소인트

1)



2)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
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
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
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운동주, 「자화상」

숙지고등학교 (경기)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구체적 행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외로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대화의 형식으로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숙지고등학교 (경기)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을 쓴

작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현실, 작품을 읽는 독자도 이해해야 한다. 즉 ‘작가는 누구이며, 왜 그렇게 표현하였는지’ 생각해 보는 관점, ‘작품 속에 어떠한 현실이 반영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관점,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관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 ① 화자는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이걸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킴으로써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
- ② 운동주 시인의 시에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잖아.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라는 시구를 보면 미움의 감정 속에 담긴 자기 반성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 ③ 이 시의 자아에 대한 애증을 반복하는 부분을 읽으며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어. 나도 거울로 내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데 화자도 그렇지 않았을까?
- ④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우물에 비추어 보며 미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시인 자신에 대한 고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 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이라는 시구가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이 시구는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이야. 그리고 2연과 6연에서 반복되면서 시 전체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어.

숙지고등학교 (경기)

3. 위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연에서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을 드러낸다.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으로 평화로운 풍경을 나타낸다.
- ③ 제3연의 ‘한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현실의 초라한 자아를 나타낸다.
- ④ 제4연~제5연에서 화자는 그리움의 대상인 ‘그 사나이’와의 추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⑤ 제6연에서 현실의 자아와 순수했던 내면의 자아의 갈등이 해소된다.

신도고등학교 (부산)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는 현재와 과거를 비교한 후 과거에 머물고 싶어한다.
- ② 시적 화자는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③ 문맥을 고려할 때 '사나이'에 대한 시적 화자의 미움은 일제에 대한 분노로 볼 수 있다.
- ④ 혼자 논가 우물을 찾아가 들여다보는 행동에서 시적 화자의 미래지향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⑤ 시적 화자는 제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미움 → 연민 → 미움 →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신도고등학교 (부산)

5. <보기> (가)를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을 쓴 작가, (가)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현실, 작품을 읽는 독자도 이해해야 한다.

- ① 시인 운동주의 작품에서 흔히 보이는 순결성을 추구하는 태도가 이 시에도 나타나 있어.
- ② 2연의 시구가 6연에서 반복되면서 시 전체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어.
- ③ 우물 속 세상과 대비되는 우물 밖의 세상은 암울한 역사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어.
- ④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순수한 자연에 의지하려는 시인의 의도를 잘 살피야 해.
- ⑤ 자신이 미워서 돌아가다 다시 우물로 돌아오는 화자의 모습에서 도전에 실패했지만 다시 힘을 내던 나를 떠올렸어.

신도고등학교 (부산)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묘사된 자연 풍경은 시적 화자의 내면을 대변하고 있다.
- ② ㉡ : 구체적 행동을 통해 화자의 외적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 화자는 현실의 초라한 자아와 적극적인 자세로 화해하고 있다.
- ④ ㉣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어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신도고등학교 (부산)

7. ㉣와 같은 심상으로 표현된 것은?

- ①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 조용히 울고 있었다.
- 신경림, 「갈대」
- ② 송사리 피라미 너희 발 간질이거든 / 너희도 개울물 허리에 간지럼 먹이고 가거라
- 도종환, 「종례시간」
- ③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튀어나와 / 또르르또르르 굴러간다 / 콩 잡아라 콩 잡아라
- 김용택, 「콩, 너는 죽었다」
- ④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 해 질 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江)을 보겠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강」
- ⑤ 저렇게 많은 중에서 /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으로 사라지고 /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 이렇게 정다운 /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 「저녁에」

신도고등학교 (부산)

8. 뒷글의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어를 <보기>에서 찾아 그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보기>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옥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 윤동주, '참회록'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워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자양고등학교 (서울)

9.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 중, 이 작품을 구성하는 내재적 요소를 이해하려는 감상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물을 찾아 자아를 성찰하는 차분한 어조를 감상할 수 있어.
- ② 자아와 화해하는 화자처럼 나 또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
- ③ 사나이의 모습이 거울을 보며 사색하는 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
- ④ 화자의 고뇌하는 모습과 삶의 태도에서 작가의 의도를 느낄 수 있어.
- ⑤ 일제 강점기라는 창작 당시의 힘겨운 세상을 접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어.

자양고등학교 (서울)

10. 밑줄 친 ㉠와 같이 감각의 전이가 나타난 시구가 아닌 것은?

- 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 이형기 <낙화>
- ② 밤바람소리 말을 달리고 - 정지용 <향수>
- ③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균 <외인촌>
- ④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박남수 <아침 이미지>
- ⑤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귀를 먹고 - 한용운 <님의 침묵>

자양고등학교 (서울)

1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시어와 문장 구조가 반복됨
- ② 우물에 비친 모습과 대조적인 현실을 표현함
- ③ 시종 일관 암울한 어조로 당시 현실을 표현함
- ④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산문적으로 진술함
- ⑤ 구체적인 행동과 심리 상태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진술됨

자양고등학교 (서울)

12. 다음 <보기>의 글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구절은?

<보기>

다음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상담한 내용입니다.

환자 : 제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의사 : 그 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매우 힘들군요. 그런데, 상처입은 사람이 갖는 자기 마음의 고통과 좌절, 분노의 원천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해결의 열쇠도 자신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저랑 같이 자신과 화해하는 훈련을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선사고등학교 (서울)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구체적 행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평서문을 사용하여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선사고등학교 (서울)

14. 윗글의 ㉠과 같은 심상이 드러난 표현은?

- ①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 ②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 ③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 ④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떠올라
- ⑤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내겐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선사고등학교 (서울)

15. 윗글의 내용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사나이'에 대한 감정 변화를 드러냄으로써 외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우물'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주관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③ 2연에서 화자는 다양한 자연물들을 열거하여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④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는 '미움-연민-미움-그리움'으로 변하고 있다.
- ⑤ 6연에서 화자는 '추억처럼'에서 힘든 현실을 과거 속에 묻어둔 채 현실을 잊고자 한다.

선사고등학교 (서울)

16. <보기>와 같은 관점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 중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관점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 ① 2연의 시구를 6연에서 반복하여 시 전체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군.
- ② 내적 갈등을 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열심히 생활하지 못해 갈등하는 내 모습이 떠올라 공감이 가는군.
- ③ 시인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군.
- ④ '사나이'가 '외판'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공간이겠군.
- ⑤ '우물' 속에 비친 평화로운 풍경은 우물 밖의 당시 일제강점기 현실과는 대조적이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판 ㉠우물을 홀로 찾아가 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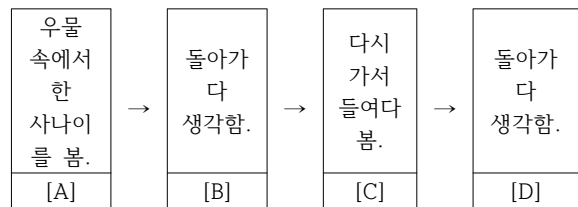
경일고등학교 (서울)

17.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 상관의 구성을 통해 섬세한 정서의 변화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② 대상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주제를 형상화 하고 있다.
- ③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의미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가까운 곳에서 점차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시켜 시상의 전환을 피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억압받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경일고등학교 (서울)

18. 다음은 위 시에 나타난 화자의 행동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우물에서 대상을 확인하고 마음을 느낀다.
- ② [A]에서 가졌던 심리는 [B]에서 변화를 보이지만, [C]에서는 다시 [A]의 심리로 돌아간다.
- ③ [A]~[B]와 [C]~[D]에서 화자는 대상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갖는다.
- ④ [A]~[D]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은 점차 불분명해져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 ⑤ [D]에서 화자는 순수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고 현실의 자아와 화해한다.

경일고등학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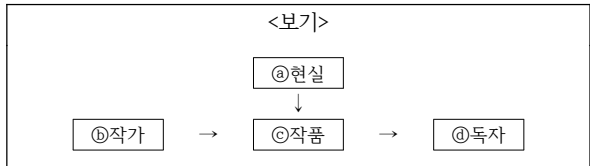
19. 위 시에서 <보기>의 밑줄 친 기능을 가능하게 해 주는 소재를 찾아 쓰시오.

<보기>

운동주는 일제 치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망국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시인은 (나)에서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픔 사람의 뒷모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역사적 자아 인식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담긴 녹슨 거울을 온 몸으로 닦아내는 준엄한 성찰의 과정 뒤에 얻어진 것이지요.

경일고등학교 (서울)

20. <보기>에 제시된 관점에 따라 위 시를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 :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를 고려할 때 '사나이'는 식민지 현실을 살아야 했던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어.
- ② ㉑ : 이 시의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두고 미움과 연민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어.
- ③ ㉒ : '우물'은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도록 돕는 매개체 기능을 하고 있어.
- ④ ㉔ : '사나이'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느꼈던 이중적 감정을 떠올렸어.
- ⑤ ㉔ : 자신이 미워져 돌아가는 화자를 보니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부끄러웠던 경험이 떠올랐어.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운동주, 「자화상」

성포고등학교 (경기)

21.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외면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평서문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산문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성포고등학교 (경기)

22. 위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내용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공간이군.
- ② 2연의 우물 속 풍경은 '사나이'와 대조되며 화자가 지향하는 모습이군.
- ③ 3~5연의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으로 보아 화자는 자아성찰의 자세를 지녔군.

▶당시의 현실은 표현되지 않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적 어조의 종류 (★)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12. ⑤

▶미웠던 사나이가 그리워짐으로써 자신과의 화해(갈등 해소)에 이름.

13. ④

▶구체적 행동(돌아감, 도로 가 들여다봄, 생각함 등)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미움→연민→미움→그리움)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명사형 어미가 아니라 종결어미 사용 ('~다') ⑤ 경쾌한 분위기가 아닌, 차분한 분위기임

14. ③

▶㉠과 같이 '향기로운 너의 말소리'(청각의 후각화)가 공감각적(감각의 전이) 표현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15. ④

① 내적 갈등에 해당 ② 미래가 아닌, 현재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 ㄱ.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ㄴ.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응, 헛갈리지 마!◀

사물 vs 자연물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16. ②

①, ④ 절대주의적 관점에 해당 ③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 ⑤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

17. ③

▶‘버니다’라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의미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① 수미 상관은 없음 ② 과장법은 없음 ④ 시선의 이동은 없음 ⑤ 자연물의 나열도 억압받는 현실도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의 전개 방식 (★)

-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대립적 전개
-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2. 과장법의 종류

- ㄱ.확대 과장법- 태양 같은 내 마음
- ㄴ.축소 과장법- 내 심장이 쥐꼬리 만해졌다.

3.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갭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18. ④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미움, 가엾음, 그리움 등으로 불분명하지 않고 뚜렷하게 나타남.

20. ②

▶②는 <보기>의 ㉠와 관련된 것임.

21. ③

▶‘~다’로 끝나는 평서문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산문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① 음성 상징어(의성어, 의태어)는 없음. ② 내면적 변화를 나타냄. ④ 공감각적 심상(파아란 바람)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이 아닌, 자연을 묘사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반어 vs 역설 (★★★)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22. ⑤

▶2연은 화자와 대조되는 풍경을 묘사한 것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묘사 (★★★)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넣어둬, 패턴 공략◀

문학에서 ‘사실적’, ‘구체적’, ‘묘사’, ‘대화’, ‘행동’, ‘일상’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며 문제의 정오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23. ⑤

ㄷ, ㄹ 작가와 관련된 감상 ㄱ 내재적 관점의 감상 ㄴ 독자와 관련된 감상

25. ①

- ▶①이 시문학에 적합한 설명임.
- ② 소설에 해당 ③ 극문학에 해당 ④ 비평에 해당 ⑤ 수필에 해당

26. ⑤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됨.

27. ④

▶일제라는 시대와 관련된 외부적 관점.
 나머지는 내재적 관점에 해당.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내적 ↔ 외적

28. ③

①, ④ (나)에 해당 ② (가)에 해당 ⑤ 어른의 눈이 아닌, 아이의 눈임

31. ②

▶‘사나이’의 심리변화가 아닌,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 변화를 알 수 있음.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틀린 선지의 형태

주체 바꿔치기 / 객체 바꿔치기 / 서술어 바꿔치기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체나 객체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32. ②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속성이 있는 ‘우물’과 ‘거울’은 작품 속 인물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함.

- ①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해 주관적 시각을 드러냄. ③ (가)에서 과거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나이가 아니라, 화자임.
- ④ <보기>에서 시간의 흐름은 없음. ⑤ <보기>도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임.

▶넣어둬, 패턴 공략◀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33. ②

- ▶영탄법은 없음.
- ④ 우물 속 자신을 또 다른 자아로 여기며 성찰하기에 자신을 객관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맞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영탄법 (★)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과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 /-어라, -구나, -는가’ 등을 사용하여 강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2. 열거 vs 반복 vs 대구 (★★)

-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34. ④

▶일제라는 시대를 반영했기에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

- ①, ③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 (작가와 관련)
- ②, ⑤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 (독자와 관련)

35. ⑤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①: 거울, ②: 돋보기, ③: 국화꽃, ④: 홍시>가 이에 해당함.

◆주제 저장소◆

- ① <거울>: 자아 분열 양상과 현대인의 불안 심리
- ③ <국화 옆에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미
- ④ <홍시를 보며>: 홍시를 통해 돌아본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 ⑤ <산유화>: 존재의 근원적 고독

▶왔다, 1등급 조건◀

외부 작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기에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문제집에서 외부 작품을 만난다면 주제 저장소 정도로만 간단히 해두자. 주제만 대략 알아도 작품의 70%이상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만이라도 아는 것과 주제조차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명심하자.

36. ①

▶<빛 바람>이 <파아란 바람>처럼 촉각의 시각화로 되어 있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37. ④

▶일제라는 역사적 현실의 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함.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이상 ↔ 현실

▶응, 헛갈리지 마!◀

행동 vs 행위

- *행동: 단순히 몸을 움직여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
- *행위: 의식적·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38. ⑤

▶'습니다'라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상승 이미지 vs 하강 이미지 (★)

- *상승 이미지: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 등
→(열정, 희망, 활발 등 주로 긍정적)
- *하강 이미지: 내리는 비 혹은 눈, 떨어지는 낙엽 등
→(이별, 슬픔 등 주로 부정적)

2.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 ㄱ.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 ㄴ.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 *'떨떨 나는 저 <피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빈 배>와 <피꼬리>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중 <물>은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상태가 뚜렷하기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구어체 vs 문어체(문장체) (★)

- ㄱ.구어체: 입으로 하는 말로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말투로 줄임말이나 개인적인 말투 등은 모두 구어체에 해당한다.(극 문학은 지문 빼고 모두 구어체라 볼 수 있음)
- ㄴ.문어체(문장체): 글로 하는 말로 구어체를 좀 더 객관화 혹은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 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공문서나 설명문은 반드시 문어체로 써야함)

- *'뉘 소리야? 난 이거랑 저거를 가져간다! →(구어체)
- *'무슨 소리야? 난 이것과 저것을 가져간다! →(문어체)

▶응, 헛갈리지 마!◀

사물 vs 자연물

-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39. ④

▶<하늘>도 ㉠<우물>처럼 자아를 성찰하는 매개체임.

42. ④

▶<보기>는 담을 통해 어둡고 암울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냄

운동주, <길>

*주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과 결의. 자아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

*해제: 1941년, 모든 것이 황폐화된 식민지 조선에서 가 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젊은 지식 인의 고뇌와 아픔, 상실과 모색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다. 민족의식을 지닌 지식인으로서 작가는 자신이 찾아 야 할 가치와 삶을 찾기 위해 '길'로 나섰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돌담'으로 표현된 황폐하고 삭막한 현실이지 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되는 진지한 물음을 통해 참된 자아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시인의 다른 작품 들처럼 현실에서 오는 고통이나 좌절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진리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결의나 다짐의 태도를 이 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화자가 찾으려 하는 것은 6연에 제시되어 있 는 '담 저쪽에 남아 있는 나'인데, 시적 화자는 돌담으 로 인해 돌담 너머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돌담이 길 과 평행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도달할 수도 없다. 담 너머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인 '쇠문'은 굳게 닫혀 있어 절망적 상황을 느끼게 하 고, '길 위에 긴 그림자'는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조 성한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 회 복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5연의 '하늘'은 비본질적 자 아를 일깨워 주는 존재로서 시적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 불 모의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있는 자신, 즉 잃어버 린 자아를 찾기 위함이고, 이 어둡고 슬픈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 한 것이라고 독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색채어 (★)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2. 영탄법

: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과 감탄형 종결어미 '-아 라/-어라, -구나, -나' 등을 사용하여 강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43. ④

▶미움, 연민, 그리움 등의 정서가 있어도 '체념'은 없음.

▶응, 헛갈리지 마!◀

자조 vs 체념 vs 한탄 (★)

*자조: 자기를 비웃음.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한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 식함.

44. ①

▶자신의 돌아보는 성찰에 걸맞음.

② 자신에 대한 성찰이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은 아님.

③ 우물에 자신을 비춰보는 행위가 소통임.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내적 ↔ 외적

본질적 ↔ 현상(현실)적 / 자연 친화 ↔ 속세

▶응, 헛갈리지 마!◀

비난 vs 비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46.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화자의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 을 이룬 것이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닌.

▶넣어둬, 패턴 공략◀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 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1-(2) 책 속에 길이 있다

1. ①

② 시와 관련된 설명임 ③ 책을 읽지 않는 현대인들을 비 판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현실에 동의하 는 것이고 독서를 게임처럼 즐거운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④ 독자에게 '독서'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전달하는 것임

⑤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은 있지만 독서를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님

▶응, 헛갈리지 마!◀

비난 vs 비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2. ③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통해 알 수 있음.

① '이런 이유만으로 그 시절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통해 알 수 있음. ④ 좋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닌 글쓴이의 경제적 결핍을 충족해 준 다는 개인적인 독서의 이유임 ⑤ 청소년기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고 함

3. ②

ㄱ.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입니 다.' ㄴ.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능력입니다.’ ㄱ.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4. ㉔

▶독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자답의 형식임
 ① 책으로 위안을 얻었음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임 ③ 경험, 편견, 이미 앎 등을 생각의 비늘에 비유하여 열거하며 부정적인 면을 부각함 ④ 심봉사 개안을 비유하여 좋은 책이 주는 효용을 역설함 ⑤ ~라는 말을처럼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함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빈출 비유법 (★★★)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줄줄줄)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엇금엇금, 슬금슬금)

2.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3. 열거 vs 반복 vs 대구 (★★★)

- ㄱ.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 ㄷ.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4. 인용의 종류 (★★★)

- ㄱ.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 ㄴ.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간접 인용)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5. ㉔

▶수필에 해당하는 특성으로 적절함.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수필의 특성 (★)

- 1) 무형식의 형식
- 2) 비전문적인 글
- 3) 개성의 문학
- 4) 고백의 문학
- 5) 소재의 다양성
- 6) 1인칭적인 문학-글쓰이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냄

10. ㉔

▶㉔은 '그렇지만'이 맞음.

11. ㉔

▶㉔은 ㉔처럼 독서의 즐거움을 노래함.

- ① 애상의 정서 ② 늙음에 대한 아쉬움 ③ 부도덕함에 대한 경계 ④ 일편단심 노래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